

47

왕이 된 다윗

사무엘하 2:1 ~ 11, 5:1 ~ 25

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갔을 때,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. 7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.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.

"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
'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
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' 하셨나이다."

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.

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.



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
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
하시더니 (사도행전 13:22)



47

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성의 이름을 '다윗 성'이라고 불렀습니다.
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다윗 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.
그 후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.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
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 보았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움직여라.
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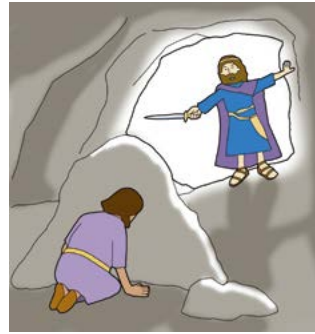
하나님께서서는 앞서 나가 싸워 주셨고,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블레셋
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.



오늘의 공부

왕이 되기까지

1. 다윗은 ¹⁾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. 다윗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나요?



2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었나요? 다음 말씀을 찾아 보고 대답해 봅시다.



◀ 시편 119:109 ~ 110

시편 18:6 ▶



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(시편 34:19)

1) 기름부음: 왕이 될 약속

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많은 어려움으로 훈련시켰습니다.
우리의 생활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학교나, 집,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
있나요?

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?

왕이 되기까지..

고난을 겪고 난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?

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
 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(로마서 8:17~18)

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. 그러나 끝까지 참고 따라가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
있습니다.



고난 다음에



영광이...



예 화

돌멩이로 종이배를

어린 소년이 연못가에서 손으로 만든 작은 종이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는데, 배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나자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.

이것을 본 소년의 형이 배가 나가는 방향에 돌을 던졌습니다. 그러자 어린 소년은 형이 돌멩이로 배를 맞추어 버릴까 봐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.

하지만 던진 돌멩이가 수면 위에 떨어져 생긴 물결로 인해 배가 점점 연못가로 오는 것을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.

우리 대부분도 어린 소년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, 돌멩이가 배를 맞추려 하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돌멩이를 던져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십니다.

부모님
난

선생님
난